

“통합은 간판이 아니라 권한·재정이 따라오는 구조 전환”

■ 민형배(국회의원·광주광역시)가 말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예고한 민형배 의원은 통합을 '간판 바꾸기'가 아니라 권한과 재정이 따라오는 구조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시·도민 삶의 이익과 미래의 판을 키우

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션21은 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과 실행 전략, 중앙정부와의 정책 호흡, 그리고 광주·전남이 지켜야 할 가치(인권·민주·평화·생태)를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내재화할 것인지 묻고 답을 들었다.

/대담=이박형 미션21 주필



▶최근 출판기념회를 마쳤는데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뜻하신 성과는 거두셨는지?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산업경제적으로 늘 소외돼 왔고, "지역엔 먹거리가 없다", "청년이 머물 곳이 없다"는 패배감이 큰 게 현실이죠. 이번 책은 그 패배감에 정면으로 맞서서, "여기에도 길이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다 떠나려 할 때 지역에 남아 자기 길을 만들어낸 청년 기업가들을 만났고요, 그들이 보여준 상상-전환-창조-확장의 성공 원리를, 이제 제도와 정책으로 넓혀서 실현하는 게 제 과제라고 봅니다.

▶통합단체장이 된다면 핵심 비전은 무엇입니까?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시·도민 삶이 좋아지고 구체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통합이 힘을 얻습니다. 이번 통합은 한마디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의 판을 키우는

일'입니다. 광주·전남 분리는 군사독재 시절의 분할 통치 유산이었고, 이제는 그 낡은 구조를 걷어내고 하나가 된 힘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예산 따내기 경쟁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주의 인프라·전남의 생태자원과 섬·동부권 산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판'을 키

연결하시겠습니까?

7개 기업 사례는 성공담이 아니라, 통합이 가야 할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들이 해낸 상상-전환-창조-확장의 선순환을 통합 로드맵에 그대로 적용하려 합니다. 핵심은 자원을 새로 정의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광주의 AI·데이

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통합특별시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5각 3북' 전략은 제 오랜 자치분권 철학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16년간 지방과 중앙

바탕으로 성공적인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투표·공론화 등 절차 부족 지적에 대한 입장과 추진 방식은?

저도 원래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단계적 통합을 말했는데, 최근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확인한 뒤에 지금의 속도

“통합의 목적은 행정효율을 넘어 시·도민 삶의 ‘이익’이 담보되어야”
“광주의 인프라와 전남의 생태·산업 자원을 묶어 ‘미래의 판’ 키울 것”

“밀실 통합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로 완성해야”

우겠습니다. 비전은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광주·전남, 그리고 출중한 교통망으로 320만 시·도민이 통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특별시입니다.

▶책에 소개된 혁신기업 7곳 사례를 통합 실행계획과 어떻게

터 역량과 전남의 바이오·에너지·관광 자원을 묶어 새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또 통합 정부가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돼서, 광주의 기술이 전남 현장에서 실증되고 고부가가치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수도권의 하위 파트너

를 거치며 누구보다 지방의 한계와 해법을 깊이 공유해왔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파격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와 줄다리하기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쌓아온 단단한 신뢰를

전에 힘을 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2월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통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민투표까지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더 치열

하게 시·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권·민주·평화·생태 가치를 정책에 어떻게 내재화하겠습니까?

인권·민주·평화·생태는 광주·전남의 DNA라서,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상수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치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 보완 시너지에 집중합니다. 광주는 인프라가 강하지만 공간적 한계가 있고, 전남은 생태자원과 공간은 넓지만 인프라가 부족하죠. 이 둘이 결합되면 생태가 산업·관광으로, 민주·인권이 포용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평가와 이재명 정부 탄생 과정에 대한 소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은, 결국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사유화되려는 흐름에 맞서, 헌법 정신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를 바로 세웠습니다. 저는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는 큰 설계를 그렸고, 큰 틀은 마련했습니다. 세부는 입법 과정에서 다뤄지

원칙을 지키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러했듯이' 글의 의미와 신앙관은?

저는 모태신앙이고, 제 정치의 기준은 늘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성탄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해인교회를 찾아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길이 떠올라 공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SNS에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다짐을 올렸고, 그 마음이 곧 '예수가 그러했듯이'라는 글로 이어졌습니다. 정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 뜻을 받들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군사정권이 강제로 그어놓은 경계선 때문에, 우리는 너무 오래 나뉘는 비효율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낡은 선을 지우고 다시 하나가 될 때입니다. 다만 방향이 중요해요. 몇몇 정치인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로 꼼꼼히 다들룰 때 통합이 완성됩니다. 이견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서울 중심을 넘어 지방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2023년 5월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라이브'에 출연한 민형배 의원.



2025년 8월 검찰개혁특위 출범식.

2026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파크골프 지도자 2급 과정 수강생 모집

목회자부부 대환영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뿐만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젊은이들까지도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동이 용이하고 심지어 비용까지 저렴해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의 여가 활동으로 너무 좋습니다.

▶ 교육일시 : [금요일] 2026. 3. 6(금) 오전 9시, 10주
[토요일] 2026. 3. 7(토) 오전 9시, 10주

▶ 강 사 : 김도경 (리더십 박사, 파크골프 전문강사)

▶ 교 육 비 : 200,000원 ※자격증 취득비용, 실습비 외 별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gsu23417@naver.com)접수

▶ 문 의 처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605-1023, 1063

※개인준비물 : 파크골프채, 복장 등






믿음이 있는 대학,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파크골프는 Park(공원)과 Golf(골프)를 결합한 스포츠로, 잘 가꾸어진 잔디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을 치고 경쟁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다.